

생명나눔-뮤지컬 '싯다르타' 업무제휴

16일 협약식… "생명나눔 문화 확산 기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16일 뮤지컬 '싯다르타' 제작팀과 '국민건강증진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업무제휴 협약' 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김면수 싯다르타 대표 프로듀서, 권영희 제작감독, 사기순 홍보이사와 싯다르타역의 배우 곽동현을 비롯한 출연 배우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뮤지컬 '싯다르타' 제작팀은 공연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비치를 통해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안내하며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하여 희망등록을 했을 경우 공연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싯다르타' 제작팀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하며 '싯다르타' 의 공연 및 활동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로터스월드 아동센터 졸업여행

9월 3~7일 캄보디아서… 졸업생과 만남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를 떠나 진학과 자립을 앞둔 졸업 예정 학생들이 여행을 통해 우정과 추억을 쌓았다.

캄보디아 시엠립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이사장 성관)는 9월 3~7일 4박 5일간 중 ·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여행을 진행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졸업여행은 그간 학업에 전념한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에서 매년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다.

고교 졸업과 함께 대학진학 또는 자립을 앞둔 졸업원생들을 위해 그동안 생활했던 아동센터를 떠나기 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여정에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도 매년 동참하고 있다.

이번 졸업여행에는 이사장 성관 스님, 원장 선문 스님을 비롯해 고등학교 졸업생 7명, 중학교 졸업생 5명, 한국 봉사자 3명, 직원 6명 등 총 21명이 동참했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든 사회생활을 시작하든 아동센터에서의 성실함과 협동정신을 생각하며 생활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졸업원생들을 격려했다.

신성민 기자

"禪의 정신, 살아 있는 문화공간으로 회향"

Interview

선문화센터 여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0월 2일 선문화교육센터 개관식
시민과 불자 위한 조화로운 공간
방장 지유 스님 '수심결 특별강좌'
"불사 취지 맞게 끝까지 노력 할 것"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입니다. 선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불교 중심지입니다. 선문화교육센터는 선(禪)을 설명하고 일반 대중에게 문화로 대기 설법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9월 20일 선문화교육센터 건립 의미를 설명하며 "선의 정신이 오롯이 살아 있는 곳"이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가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뿐 아니라 불교 전통 문화를 전할 중심지로 우뚝 서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범어사는 선문화교육센터를 선문화관, 선문화교육관, 템플스테이관, 다음관 총 4개동으로 구성했고, 다가오는 10월 2일 오후 4시 30분 선문화교육센터에서 개관식을 진행한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선문화교육센터가 선찰대본산인 범어사 정신을 잇고 부산 시민과 불자 모두에게 회향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고 했다.

"범어사는 그동안 많은 행사와 강의를 하려 해도 공간이 부족해 한계가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쉼을 얻기 위해 찾아와도 둘러 앉아 차 한 잔 마실 공간도 없었어요. 선문화교육센터는 불교 강의와 시민 선방 등 수행정진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으며 인문학 강의 및 세미나 연수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결혼식도 계획하고 있고 차를 마시며 산사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문화관은 1,472.58㎡(445평) 규모로 1층 대강당에는 세미나, 연수교육,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결혼식, 전시회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하다. 2층은 다용도 문화공간이며 다양한 차를 시음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된다.

선문화교육관은 317.26㎡(398평) 규모로 1층에 불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과 식당으로 구성되며 2층은 시민선방이다.

불교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관은 499㎡(151평)이며 1층에 대방, 남녀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있고 2층에는 화장실이 구비된 2인실 방 10개와 대방 등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0명까지 인원을 수용하여 템플스테이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선 스님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 정신' 이 살아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오직 부처님의 마음, 선(禪)을 전하기 위한 방편임을 강조했다.

한편, 범어사는 선문화교육센터 개관식에 앞서 10월 2일 오후 3시 범어사 대웅전에서 개산 1341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영호남 종립학교 '미래포교' 약속

광주 정광학원, 영천 동곡학원
9월 16일 자매결연…장학금도

영 · 호남 불교 종립학원이 청소년 인재불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화엄사 주지)과 경북 영천 동곡학원(이사장 돈관, 은해사 주지)은 지난 16일 정광학원 법당 대승원에서 두 종립학원의 설립이념 실현과 상호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템플스테이를 통한 학생교류와 문화, 역사교류, 장학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

돈관 스님은 이날 첫 교류로 전교생과 교직원 1,800명에게 햄버거 공양을 대접하고, 장학금 1,000만원을 정광학원에 전달했다. 이어 화엄사 한주 명궁 스님도 장학금 500만원 기탁했다.

자매결연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돈관 스님은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정광학원과 경북을 대표하는 동곡학원이 상호교류를 통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와 역사, 학생들의 학습까지도 서로 이해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곡학원 이사장 돈관 스님이 정광중 · 고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덕문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어린 학생들을 늘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런 마음을 위해 많은 불교계 어른들이 장학금과 법인 후원금 등을 많이 기탁해 주고 있다. 저희도 열심히 학교를 운영해서 부처님의 정법이 학교에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광학원은 1946년 만암 스님의 원력으로 전남 지역 5개 교구본사가 재원을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정광중학교, 정광고등학교에서 1600여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동곡학원은 일타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10년 은해사가 영천 선화여고의 운영법인인 영도학원을 인수해 동곡학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립학교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국대 경주캠, 법산 스님 법회

9월 17일 교내법당서…300명 참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은 9월 17일 교내 법당에서 2019학년도 2학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취임기념 교직원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교수 · 직원 · 학생 ·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이사장 법산 스님은 '구름처럼 살자' 는 법제로 "모든 것은 노력과 추진력에 따라서 달라지며 '상의상존' 으로 우연은 절대 없다"고 설법했다.

신성민 기자

청암봉사協, 광주소년원 위문

9월 9일 원생 점심 후원



(사)청암봉사협의회(회장 지암)는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9일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생들을 위한 위문활동을 펼쳤다. 소년원생들에게 멘토 · 멘티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이날 원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상담을 진행한 후 점심을 후원하는 등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소사, 나누미근농장학금 기탁

9월 18일 부안군청에 500만원 전달



부안 내소사 진성 스님은 9월 18일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스님, 관음회 불자들과 함께 부안군청을 방문해 나누미근농 장학재단 이사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지역인재 육성에 사용해 달라며 나누미 근농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부안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설립돼 현재 170억여원을 기금을 바탕으로 연간 약 11억원의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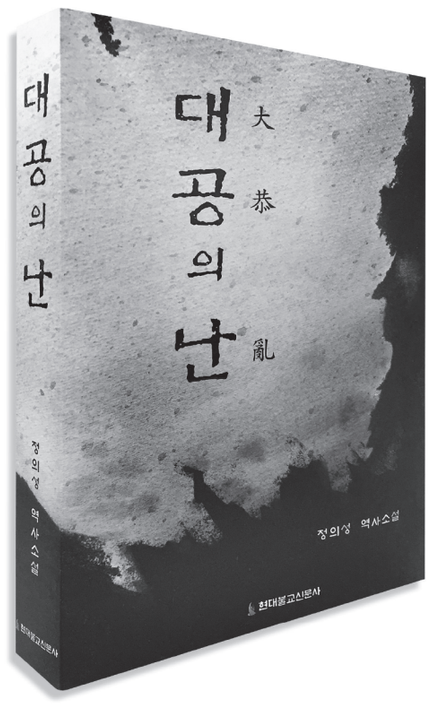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